



글 쓰기

12. 감상하는 글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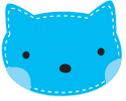


감상하는 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1. 감상하는 글은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한 글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글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2. 다음 글을 읽고, 감상하는 글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 되돌아온 순무 한 개

㉡ 어느 날 토끼는 무 두 개를 발견하였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당나귀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다. 무를 발견한 당나귀는 양이 배고플까 봐 양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양은 또 사슴 집에, 사슴은 또 토끼 집에 무를 몰래 가져다 놓았다. 결국 무는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 다들 배가 고팠을 텐데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다. 나도 먼저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길러야겠다.

1)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2)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① 책의 내용() ② 생각과 느낌()

3) 감상하는 글에 대해 말하여 봅시다.



3. 감상하는 글에 대해 정리하여 봅시다.

•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하여 ()을 쓴 글입니다.





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아요



1.

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책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 까닭을 떠올려 정리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떠올려 봅시다.

신기한 멧돌

집에 먹을 거라곤 콩 한 줌 밖에 없는 아우는 쌀을 얻으러 부자 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형은 쌀쌀하게 내쫓았어요.

㉠ “뭘, 쌀이라고? 쌀은커녕 개똥도 없다, 없어.”

“저런, 쫓쫓. 여보게. 내가 꾸어 줘세.” 마침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아우에게 쌀을 한 자루 꾸어 주었어요. 아우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우가 쌀 자루를 지고 산길을 올라갈 때였어요. 어떤 영감님이 숨을 헉헉대며 무거운 멧돌을 지고 오지 뭐예요?

“아니, 영감님. 그 무거운 멧돌을 왜 지고 가십니까?”

“글쎄, 우리 마누라가 며칠째 앓아 누웠다네. 죽이라도 끓이려고 쌀을 구하러 다녔는데 한 톨도 못 구했어. 그래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다가 이 멧돌이 보이기에 지고 가는 길이라네.”

㉡ 그 말을 들은 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영감님, 이 쌀을 가져가세요.”

“그게 정말인가?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럼 이 멧돌이라도 가져가게.” 그래서 아우는 멧돌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영감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지요.

“잘했어요. 우리야 이 멧돌로 콩을 갈아 콩죽이나 끓여 먹지요, 뭘.” 아내는 콩을 멧돌에 털어 넣고, 슬슬 돌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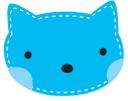
“이 멧돌에서 쌀이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정말로 멧돌에서 쌀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 멧돌을 멈췄어요. 그랬더니 쌀이 나오던 것도 멈췄지요. 혹시나 싶어 아내는 다시 멧돌을 슬슬 돌리며 말했어요.

“아이들 먹이게 고기도 좀 나왔으면.” 그러자 이번에는 멧돌에서 고기가 슬슬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쿠, 이거 신기한 멧돌이네! 보물 멧돌이야!” 아우와 아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2. 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책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책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 까닭을 떠올립니다.



3.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봅시다.

- 1) 글의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말하여 봅시다.
- 2) 그 내용이 기억에 남는 까닭을 떠올려 봅시다.
- 3) 기억에 남는 내용과 그 내용이 기억에 남는 까닭을 정리하여 봅시다.

기억에 남는 내용	
그 내용이 기억에 남는 까닭	



4. 감상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정리하여 봅시다.





생각이 잘 드러나게 감상하는 글을 써 보아요



1.

감상하는 글은 기억에 남는 책의 내용과 그 내용이 기억에 남는 까닭을 정리하여 씁니다. 다음 글을 읽고 감상문에 쓸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닐스의 모험

어느 봄날, 닐스는 혼자 집을 보고 있었어요. 달그닥 달그닥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닐스는 소리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곳에서는 난쟁이 할아버지가 옷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닐스는 곤충 잡는 그물로 난쟁이 할아버지를 덮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 “안돼!”

그 순간 닐스는 무엇인가에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어라? 모든 게 다 이상해.’

정신을 차린 닐스는 모든 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난쟁이 할아버지도 없고, 방도 훨씬 넓어지고, 의자도 커졌고, 식탁도 너무 높아졌어요. 닐스는 간신히 탁자 위로 올라가 거울을 보았어요.

‘어? 난쟁이?’

닐스는 어느새 난쟁이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꼬꼬댁, 닐스가 난쟁이가 되었어.”

닐스에게 혼난 적이 있는 닭이 비웃었어요.

㉡ “음매 음매, 구두를 던져 내 엉덩이에 멍이 들게 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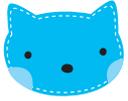
외양간의 소가 다가와서 닐스를 뒷발로 걷어찼어요.

“으아앙!”

닐스는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 “닐스, 울지 말고 나랑 함께 가자!”

그때 기러기 한 마리가 닐스에게 말을 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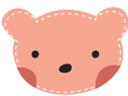


2.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감상하는 글을 써 봅시다.

- 1) 기억에 남는 내용을 말하여 봅시다.
- 2) 중요한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봅시다.

글의 내용	내 생각이나 느낌
집에 혼자 있던 닐스는 난쟁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곤충 그물로 덮쳤다.	
닐스는 무엇인가에 얻어맞고 난쟁이가 되었다.	
닐스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물들이 닐스를 놀리고 혼내주었으나 기러기가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한다.	

- 3)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하는 글을 써 봅시다.



3. 내가 얼마나 잘 하였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확인 내용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보통이에요
1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내용을 썼나요?			
2	기억에 남는 까닭을 썼나요?			

